

이재명과 민사판례연구회의 밀약

(좌파, 민주당이 20년을 은밀하고 치밀하게 공작한 사건)

좌파 우리법연구회는

올해 39년 되었고, 조직원은 200여명 가량 추산된다.(정권에 따라 증감)
우리법연구회는 윤대통령 탄핵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의 문형배로 인하여
그 마각이 많이 부각되었고, 우파 국민들에게 원성을 사는 계기가 조성되었다.
그들은 우파와 일반 국민에 대하여 온갖 약탈과 만행을 많이 했지만,
자기 대통령을 파면시키거나, 자기 좌파 정부를 실각시키지는 않는다.

반면, 우파 민사판례연구회는 지난 8년 동안 자기 대통령을 두 번 파면,
자기 정부를 두 번이나 실각시켰고, 최근 세 번째로 김문수 후보까지 한덕수로
새벽 3시에 바꿔치기 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였다. 극적으로 아슬아슬하게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자신의 후보 권리를 지킬 수 있었다.

이 민사판례연구회는 올해로 47년 되었고, 역시 200여명 수준이다.
이들의 특징은 조직원들이 웬만해선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귀의 최대 무기가 < 마귀~ 없다! >는 우스갯소리와 같이 그들의 활동은
아주 은밀하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이다. 단, 유명한 조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오픈되는데, 이회창 전대법관, 이영훈 전대법원장, 양승태 전대법원장
등, 극히 소수의 인원만이 알려져 있다. 그것도, 최근에야 일부 조직원들을
공개했다.

이들이 실제로 국민의 힘 당의 대주주(?)이며, 실소유주(?)이다. 이번, 김문수
후보권 강탈사건을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누군가 당의 배후에 실제로 존재
한다는 사실을 눈치 챘으리라. 쌍 권이 표면적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이
배후의 시나리오에 따라 오다(명령)을 수행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현직 판사들의 불법적 사조직을 완곡한 표현으로 금지하고 있다.

헌법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독립하여] 심판하라고 했는데, 현직 판사들이 연구회 명목으로 사조직을 결성하여 그 활동 했수가 증가될수록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조직 존재를 위한 조직 이기주의와 조직원들의 이해관계에 더 충실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국가 근간이 되는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반란법조의 망국으로 발전하게 된다. (현재 한국에서 두 번의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그 패악이 드러났음)
헌법84조 깬 병신(2016)정변, 8년 후, 헌법77조, 헌법84조 깬 갑진(2024)정변

그러므로 헌법103조에 의하여 현직 판사들의 사조직은 해체되어야 한다.

한국 법조계의 양대 불법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와 민사판례연구회는 한쪽이 법적으로 적극 저지하면, 어떤 법적 사건도, 크게 잘못될 수 없다. 왜냐하면, 법리는 수학과 같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서, 공의를 바탕으로 공정해야하기 때문이다. 더하여 헌법재판소와 같이 좌우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특히, 최후 판결 표결에서 자기 정파의 지지로 귀결되기 때문에 성향에 대한 안배와 소수 의견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판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룰을 어기고 8대0이란 방식으로 우파의 대통령과 정부를 두 번이나 파면, 실각시킨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법연구회와 민사판례연구회의 야합 판결 때문이고 최근 8년 동안 한국의 이상, 아픈 정치 상황도 바로 이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작 및 정치 상황의 모면을 위해 법치를 파괴하는 판결을 하기에 오늘날 한국 정치의 대혼란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신이 법률 전문가 중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대통령과 똑같은 결과, 8대0이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민사판례연구회가 계획과 시나리오를 짜서 좌파 우리법연구회와 밀약하여 판결했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현직 대통령도 두 명씩이나 파면하는 우파 법조 민사판례연구회가 (늘 좌파를 이용함), 수많은 범죄 혐의에 둘러싸여 있고, 측근 용의자가 최소 5명이나 의문사한 사건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했다는 사실 또한 바로 우파 법조 사조직인 민사판례연구회가 암암리에 은밀하게 보호해 줬다는 것을 눈썰미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알아챌 수 있겠다.

즉, 현직 대통령도, 맘에 안 들면, 두 명이나, 파면시키는 무소불위의 우파
현직 판사조직이 민주당 수장의 수많은 범죄 혐의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이들이 보호자란 사실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각설하고,

그렇다면, 우파의 민사판례연구회는 무슨 목적으로 이재명과 밀약을 맺고,
자기 정부를 실각시켰을까?

이재명 밀약설 첨부:625때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고, 윤정부탄생 비화...증거2
<https://www.air365.net/miv2/2023/07/15/815> (홈페이지에서 제목 검색)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며.

여기에 좌파 민주당이 23년 동안 은밀하고 치밀하게 공작한 사건이 있다.

추적 60분은 1차 2005년 10월 19일, 2차 2005년 12월 21일
이렇게 두 차례 방송되었고, 공기청정기 오존 규제법은 곧장 만들어졌다.

방영 이후에 정부 관계기관에서는 규제법을 제정하였고 변조대체불능의 역학
조사까지 완료하였지만, 그 피해자들만큼은 단 한 명도 구제해주지 않았던
불법 법조사조직 우리법연구회와 그 최초 설립자 박시환 대법관에 의하여
은폐 막장 판결을 받고, 묻혀버린 사건이 있다. 바로,

<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 >인 것이다.

참조: 박시환 대법관 은폐 막장 판결 첨부 글: (홈페이지에서 제목 검색)
<https://www.air365.net/miv2.2023/08/31/> : 이 반역 판사들을 탄핵하고 더
러운 껍데기를 벗겨 주시길 국민에 탄원합니다. -만 1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도 이 판결문만 보면 구토가 올라옵니다.

좋다,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칠 수 있다.

대법관 박시환은 은폐막장 판결을 한 후에 큰 수익을 얻었겠지만, 추적60분에

두 번이나 방영되어 온 국민의 뇌리에 찍혀 있던 기록까지 은폐할 수 없다는 사실에 밤잠을 설치고, 오금이 저렸을 것이다.

그래서 설계 기획한 사건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2011년)인 것이다.

오존 공기청정기 대법원 판결(2010년)이 나온 다음해에 생긴 사건인 것이다.

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을 덮으려한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피해자들의 피해증상이 아주 유사하기 때문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었던 음이온 오존공기청정기 피해 사실을 숨기기 위한 범정부적 은폐공작이 조용히 정보기관 및 각 부처기관들을 통하여 실행 되어갔다.

당시 환경부 장관이었던 정세균은 국가 예산을 들여 200만대 이상 팔린, 오존 공기청정기 피해자들을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난리가 난 소비자들의 원성을 잠재우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제품 교환과 OK 캐시백까지 동원하여 교환 환불해 주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알리고 전과자까지 된 저와는 2006년 9월 달에 KBS를 통하여 피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담당 과장과 약속까지 했다.(이후, 본 사건에 대하여 정부기관에서 풀어줄 것을 믿으며 계속 신고함)

그러나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조사한 피해보고를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가습기 피해자는 3명에서 시작하여 박근혜 대통령 파면사건을 기화로 폭증하게 된다. 헌법84조 깨고 죄 없는 대통령도 파면했는데, 가짜 피해자 수천 명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문정부를 지나는 동안 좌파 민주당이 10년 전 은폐한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을 2중으로 덮고 완전 범죄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은 환경부를 전면배치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피해자를 발굴하여 대량 양산하기에 이른다.

문정부에서 국정조사 및 청문회 2회, 서울시 피해조사 및 책임추구 기자회견 등등 병원이나, 기타 관공서를 통하여, 특히 의료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발굴하려고 끊임없이 정부차원의 광고와 홍보로 피해자 대량생산 중이었다.

그 결과, 2016년에 수백명에서 2022년, 5천명이 넘는 가짜 피해자를 만드는 데 이르렀다. (가짜임을 증명할 수 있음) 보상금도 3000억원 가까이 갈취하여 나눠먹고 있는 중, 이 모든 것을 환경부가 직접 진두지휘 관리하고 있음.-

모든 증거는 www.air365.net -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피해조사 발표는 20년째 은폐하고 , 별 피해도 없는
가습기 살균제로 총 9000억원을 요구하고 있고, 3000억 원은 결재 받음.

이것이 좌파 우리법연구회만으로 가능할까?

좌파 우리법연구회와 우파 민사판례연구회는 2016년까지 물과 기름 같은 존재
였다. 도저히 섞으려야 섞을 수 없는 좌우파 불법 법조 사조직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발로 야합의 밀실공작이 벌어졌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좌파 우리법연구회는 정권을 차지하고, 반란우파 법조사조직 민사판례연구회는
눈에 가시 같았던, 말 안 듣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피해 진상조사 사건은 좌파나 우파 한 쪽만 주장해서는 피해보상이 이루
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의 필요로 자연스럽게 야합하게 된다.
결국, 이들은 좌우파 법조사조직의 반역범죄를 끈질기게 추격하던 헌법수호대
의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을 덮기 위해서 환경부를 앞장세웠고, 가짜피해자를
대량생산하기에 이른 것이다.(문정부에서 대부분 양산됨 : 현재 7000명 넘음)

가결론

민사판례연구회가 이재명과 밀약한 증거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초기전개와 민주당이 주관하여 국회에서 국가 예산을
받아내는 과정에 고스란히 남아있고, 거짓 피해실체를 검증할 수 있겠다.

특히,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정확히 23년 동안 국가 정보기관 및 민주당 내부의 요원들을 통하여
기저단계부터 보이는 심층형상 단계까지 공작하였다는 사실과 ,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을 덮기 위해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일으켰다는 증명은 시간
순으로, 그 절차와 과정만, 재조명해도 명백하게 진상이 드러나겠다.

결론 도출의 근거.

현재, 인터넷에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보면, 음이온 오존공기청정기 사건에 대한 내용이 거의 검색되지 않고, 추적 60 분에 두 번 방영 된 사실 자체를 찾기 힘들 만큼 인터넷에 자료삭제 공작과 공정을 해 놓았다. (20년 가까이)

더하여 추적 60분은 2021년 완전 폐방을 하고 KBS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가 갑자기 다시 나타난다. 왜?

위에서 언급한 사실을, 처음으로 2023년 10월경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했고, 그 이전에는 대략의 재판과 진행과정 정도만 공개하고, 세부의 자세한 내용은 많은 부분을 공개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사실 끊임없는 감시와 해킹, 공격을 받아왔고, 지금까지도 담담히 응전 중)

이렇게 사건 진상의 사실이 공개되자, 추적60분은 다시 방송을 재개한다. 사실, 이들이 20년 전 공기청정기 사건을 방영하기 위해 찾아온 것은 공기청정기의 피해자나 위험성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피해의 엄청난 충격을 완충시키려고, 민주당의 대 국민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접근한 것이다.

2005년 9월경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방송을 하자고 한 것이고 당시에는 물에 빠진 이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방송에 임한 것이다. 국가 정보원도 개입했고,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환경부가 모두 달려들어 공작한 사건인 것이다. (이들은 참여 정부 말에 사건의 모든 핵심인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원으로 개명하였고, 인체피해도를 직접 조사했던 산업자원부는 폐지해 버림)

그 후 10여년이 훨씬 지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이 생겼고, 이로 인해 우파 법조인 민사판례연구회와도 척을 지게 된 것이다. 헌법을 깬 반란자들을 우파라고 봐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완전히 덮기 위해서 우리법연구회 박시환 대법관은 민사판례연구회와 야합을 했고, 서로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던 것이다. 당시에 민사판례연구회는 헌법84조 깬 반란죄로 우리법연구회에 코가 꿰어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 1980년대 **제비족과 바람난 유부녀와 같이** 말이다.

이러한 연유로, 어떡해서든 이재명을 보호해 줘야하고, 그 약점에 코가 꿰어서 대통령을 시켜줘야 하는 것이다. 벌써 3년 전에 약속을 지켰어야 했는데, 이제

야 지키게 된 것이다.(이미 여의도 대통령은 작년 2024년에 되었음: 언론표현)
반란우파-매국마귀-법조사조직 민사판례연구회. 나하고는 개인적 원한 없음
다만, 2016년, 11월 헌법84조 깨고, 박근혜대통령께 반란반역을 했기 때문임.

반면, 도적좌파법조 우리법연구회는 국민의 치명적인 피해를 은폐하고
자신들만 빠져나갈 법규를 만들고, 피해자들은 단 한명도 구제해 주지 않고,
오히려, 이를 추격하는 나에게, 봉평에 사시는 아버지 사건에 달려들어 피해자
를 가해자로 바꿔치고 재산을 빼앗아가는 파렴치한 날강도 원수가 된 것임.

이 모든 사실의 근거와 증거는

맑고 싱그러운 세상 헌법수호대의 홈페이지에 2002년부터 연도별로 자세히
사건의 진행과정을 올려놓았다. 23년이 흐르는 동안 홈페이지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 번 바뀌어도 진실을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전진하여 왔다.

추적60분에 두 번이나 방영된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에 대하여 검색해
보면, 방송 내용이나, 사건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음.(동북공정 이상의 공작).
최근 추적60분을 재방영하면서, 그나마 조금,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검색됨.
방송 내용은 유튜브나, 인터넷 어디에도 없음. 완전은폐,
그런 반면에 가습기살균제는 검색하면 줄줄이 끝이 없음.

[2006년 환경부 장관이었던, 정세균]은 국가 예산으로 전수 검사를 해 놓고
20년이 다 되는 지금까지도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20년 동안 정보기관 및 관계기관들로 공작했다는 증명.

2025. 5. 31
감사합니다승리
승리영광!!!

두서없는 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실에 대한 23년의 진실 보고.]

헌법수호대 www.air365.net

맑고싱그러운세상 천각 exe. 광여호수아 배상